

<나의 삶 나의 하나님> ★ **예수님 처럼 살고 싶습니다.**

일단 그분은 건강하셨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물골이 골골하면 젊은이라고 쳐주기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셔도 그저 낮잠 한 번 주무시고
피로를 말끔히 씻으셨습니다.
사십일 금식기도를 하고서도 꼬덕 없으셨습니다.

음식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잘 잡수십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 분이 무엇이나 잘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르다에게도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어서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
습니다. 다만 정성들여 요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의를 보고도 못본척 해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요.
그러나 젊은이는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채찍을 휘두르며 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단력도 강하셨습니다.
젊은이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의 집에 가서서 주무시기로 작정하신 일도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의적이셨습니다. 젊은이는 창의적입니다.
젊은이는 보수적이기보다는 개혁적입니다. 아니 개혁적이기보다는 혁명적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
니..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마 5:38-39).
정말 혁명적인 교훈입니다.
새로운 의견은 언제나 도전을 받는 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창조적인 교훈을 거침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해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경호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요7:46)

예수님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젊음의 특징은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비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믿는 바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신념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에 목숨을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를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젊습니다. 영원히 젊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QT하는 갈보리교인'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3권 4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10월21일
☎520-9464/021-292-1639, ☒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 **당당한 어느 여가수**



어느날 텔레비전에서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를 보았습니
다. 사회자인 노영심이 혼자 이야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피아노도 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동그랗고 납작하여 소가 뒷걸음질 차다가 엉덩이로
눌러버린 것 같은 얼굴은 방송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어눌하고
행동도 굼뜨서 펄펄 나는 신세대 가수들에 견줄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방송프로그램을 단독 진행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 이유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얼핏 느꼈
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 만큼은 그 누구보
다도 자신이 있다는 그런 만만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피아노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똑같은 피아노를 똑같이 두드리는데
도 사람에게 따라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니... 이렇게 피아노를 당
당하게 치니 그녀의 못생긴 얼굴은 귀엽게 보이고, 어눌한 말투에도 사람들
이 재미있다고 웃어주고 촌티나는 모습을 순수함으로 받아주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자신있게
잘하는 자신만의 장점을 잘 개발시키면 다른 부족한 부분도 그로 인하여 예
쁘게 봐 줄만 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던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자신감 없이 여긴다면 예수님의 귀한 뜻을 스스로 던져 버리는 것
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20)"**

-어느 전도용 글에서-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50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3(시편 150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82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신경화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1-4(신 142)	인 도 자
부부성가대 Couple's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37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0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 Time	주 일 안 내
7일		김교섭	김시욱.장선주	김영길.김시욱	박일영.임혜자
14일	송정섭	김순자	김영길.신경화	김교섭.김성국	최윤희.송정섭
21일	신경화	김영길	김종건.지찬영	김종건.박일영	김교섭.정희자
28일	인치혁	김종건	박일영.임혜자	인치혁.최윤희	김종건.지찬영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에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학생.청년부: 토요일 4:00
------------	---------------	--------------	------------------

교 회 소 식

- 연합부흥회 마지막 날: 오늘 오후 3시. 주님의교회
*부흥회 설교 태잎 판매: 4개 \$7. 구입신청서를 이용해 신청.
- 이삭줍기 봉헌: 다음주일은 이삭줍기 봉헌주일입니다.
*한달간 Silver Coin을 모아 들려지는 헌금입니다.
- 교우소식
*별세: 박용태 집사. 20일(토). 장례식: 23일(화) 오전 11:30
- 10월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7일		Daylight Saving Time
14일		식사친교.구역예배(12)
21일		연합부흥회(18-20).
28일	이삭줍기 봉헌	

'나병 환자와의 입맞춤

프란체스코는 유난히 나병 환자를 기피했는데 어느 날 좁은 길로 여행하던 중 나병환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순간 그는 뒤로 물러섰다. 그때 마음속에서 질책하는 주의 음성이 들렸다. 그는 다시 나병 환자에게로 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후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길엔 아무도 없었고, 햇빛만 내리쬐고 있었다. 프란체스코는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아, 그리스도였구나.'